

공매도 금지에도 시황 부진… 외국인 이탈 가속화 우려

“금지직후 변동성 크다 안정 찾아
본질적인 펀더멘탈로 돌아간 것”

“지난달 외국인 일평균 거래액
6조1620억으로 31.5% 감소”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행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순매수세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평균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외국인 이탈에 대한 우려도 발견됐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중단이 시행됐던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2022년에는 16조원,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19조5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황은 부진한 모습”이라며 “다만 투자자에탁금은 공매도 금지 직후 2조8000



/유투이미지

억원 증가했으며, 현재는 공매도 금지 이전 대비 7% 증가한 48조원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실시되기 직전이었던 3일 기준으로는 44조7000억원에 머물렀다.

다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29일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6.3%, 5.1%씩 상승했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큰 모습

을 보였으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시행되기 전 국내 증시는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고금리·고물가 우려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월 15일 이후 2600선으로 진입한 적이 없으며, 이날부터 11월 3일까지 8.9%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지난 9월 11일 이후 900선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날부터 이달 3일까지는 14.3%가 떨어졌다.

다만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반영됐다면 이번에는 단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한 효과가 있었지만 그제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

국의 통화 정책 등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매도 전면 중단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은 10월 3조6570억원을 순매도하고, 11월 들어 29일까지 3조782억원을 순매수해 투심이 반전됐다. 하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살펴보면 지난달 약9조49억원에서 11월 29일까지는 약6조1620억원으로 31.5% 가량 감소했다.

앞서 강승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으며, 이철현 하나증권 연구원도 “시장이 이러한 정책(공매도 전면 중단 등)에 휘둘리는 모습은 증시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왼쪽)과 한동엽 소셜인베스팅랩 대표가 토근증권 사업 추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소셜인베스팅랩 토근증권 사업 업무협약

하이투자증권은 SNS기반 주식매매 플랫폼 운영사인 소셜인베스팅랩과 토근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하이투자증권 본사(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한동엽 소셜인베스팅랩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하이투자증권과 소셜인베스팅랩의 이번 업무협약은 토근증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토근증권 관련 사업모델의 발굴과 조각투자업체 제휴 확대, 토근증권 관련 콘텐츠 제공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소셜인베스팅랩은 국내 최초 SNS 기반 주식매매 플랫폼인 ‘커피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기존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 SNS를 결합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계좌개설과 주식거래는 물론 다양한 투자자들과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하은 기자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 연말 산타렐리 기대감 ‘뚝’

이달 코스피 상단 2600선 예상
“코스피,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아”

이달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12월 상승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산타렐리(연말 주가 상승)’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등 증시 상승을 견인할 호재가 없기 때문에 한동안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 10.62% 상승했다. 이는 월별 기준 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데다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부터 코스피 지수는 2490~252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코스피가 전 거래일(2519.81)보다 7.70포인트(0.31%) 하락한 2512.11에 개장한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은 “11월 코스피는 월간 수익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의 금리 하락과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변화 덕이 컸다”면서 “올라간 속도가 급했던 만큼 언제 쉬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코스피 지수가 올해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며 12월 코스피 상단을 2600선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 2300~2600, 키움증권 2420~2620, 신한투자증권 2400~2550, 현대차증권 2330~2600 등이다. 이들 증권사들은 그동안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만큼 산타렐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데이터 의존적인 기준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면 경기가 연착륙하면서 내년 연간 4~5회 금리 인하가 함께 나오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은 이런 Fed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12월 산타렐리 현실화 가능성은 지금처럼 제한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적정 수준에 이미 도달한 상황에서 제조업 경기반등 신호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연말 상승장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11월 S&P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전월치와 예상치보다 낮은 49.4를 기록했다. 경기 판단 기준인 50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월 발표가 예정된 ISM 제조업 PMI도 부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12월 상승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배당주처럼 안정적인 투자대상과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관희 기자 wkh@

내년 2월 ‘짐펜트라’ 美 출시… 셀트리온, 실적성장 기대

FDA 판매허가 후 4개월 만에 론칭

통합 셀트리온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꼽히는 ‘짐펜트라’가 내년 2월 글로벌 최대 시장인 미국에 출시된다. 셀트리온 그룹이 꾸준히 진행해 온 완전 직판 체제로의 전환이 큰 시너지를 내면서 내년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SC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 SC 미국 제품명)가 미국에서 내년 2월 29일(현지시간) 출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월 20일 미국 식품의약

국(FDA)으로부터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받은지 4개월 만의 빠른 론칭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짐펜트라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대다수의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에게 짐펜트라의 임상 자료 제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선호의약품 등재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특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부 PBM의 경우 짐펜트라 출시 시점을 전후로 실질적인 처방집 등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직판 체계도

강화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내년 1월까지 짐펜트라의 판매를 담당할 세일즈 전문 인력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으로, 홍보 및 마케팅 전담 인력은 3배 이상 확충 더욱 공격적인 커머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짐펜트라는 통합 셀트리온의 2030년 12조원 매출 달성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블록버스터 제품인 만큼, 짐펜트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미국에서 성공적인 처방 확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직판 체계가 렘시마SC 판매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한투자증권 정재원 연구원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렘시마SC의 미국 출시가 2024년 예정돼 있다는 점은 시너지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유럽에서 쌓인 실제 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년 매출액 전망치는 2조8048억원으로 올해보다 2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전일보다 0.56% 오른 7만1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KB증권-소시에테제네랄 아리랑본드 발행 성공

KB증권은 지난 29일 프랑스 기반 글로벌 은행 그룹 소시에테 제네랄이 7년 만에 한국시장을 찾아 발행하는 선순위 아리랑본드를 단독 주관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달라진 시장 상황을 포착하는 발행사의 노련한 조달 경험과 국내는 물론 국제 채권발행시장(DCM)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KB증권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 29일 아리랑본드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아리랑본드란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 채권이다. KB증권과 소시에테 제네랄은 한국, 미국 및 유럽시장의 금리와 환율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유리한 타이밍을 포착,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한 아리랑본드 발행을 선택했다.

이번에 발행하는 270억원 규모의 선순위 아리랑본드는 10년 만기에 발행 후 7년 후부터 매년 쿨(조기상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무이표 단기 채권으로 이자가 단리로 누적되며 만기일 혹은 조기상환일에 원리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채권의 수익률은 연 5.40%이며, 사모형태로 발행된다. /신하은 기자